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 포 일시	2021. 11. 18.(목) 16:00
담당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장 김동곤 (02-6050-2515)	담당자	한유빈 사무관 youbinhan@korea.kr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카라반팀장 김만수 (02-6050-2512)		정육재 사무관 juj0@korea.kr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 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 11. 18.(목) 14:00**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생, 수요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 이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 개최 회의로, 인재양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시스템반도체 분야 현장개최: 5.6일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 연세대학교 현장방문 및 빅3(BIG3) 추진회의 개요 >

- **일 시** : 11.18(목) 14:00~15:30
- **장 소**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 **참 석** : (정부) **홍남기 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 김용래 특허청장
 (민간)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용원 만도 상무, 박준영 유엑스팩토리 대표,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
 연세대학교 학부·석사·박사과정 학생(5명), 명재민 연세대 공과대학장,
 강성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 융합인력센터장
- **내 용** : ① (14:00~14:30)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점검 및 간담회
 ② (14:30~15:30)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 먼저, 연세대학교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을 청취하고, 연세대학교 학부·석사·박사과정 학생 5명, 명재민 공과대학장, 김희승 삼성전자 인사담당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 연세대학교는 시스템반도체 융합인력양성센터를 통해 6년간 석사 120명, 박사 67명의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중이며, 채용연계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여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주도 연구, 프로젝트 중심 교육 등을 시행중

* 연세대학교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설립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

- 간담회 참석 학생들은 진로, 학업관련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으며, 기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설명하고 인재유치 애로사항 등을 건의

-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측 참석자는 학생, 교육기관, 수요 기업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인재양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강조

□ 이어서 14:30 홍남기 부총리는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번 회의에는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강성호 연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융합인력육성센터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용원 만도 전장구매실장,

박준영 유엑스팩토리 대표 등 관련 반도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 ① 빅3(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 ② 빅3(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 ②-1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 ②-2 K-반도체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완화
 - ②-3 반도체산업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 ③ 중소·벤처 팹리스 생태계 전주기 지원방안
- 안건이 논의되었음

-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 (별첨) 1. BIG3 산업 중점추진과제
 - 1-1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 1-2 반도체산업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2. 중소·벤처 팹리스 생태계 전주기 지원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현장점검을 겸한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강성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 융합인력육성센터장님,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님, **김용원** 만도 전장구매실장님, **박준영** 유엑스팩토리 대표님 등 **민간위원·현장전문가** 5분께 감사말씀 드림
- 최근 반도체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는 **매우 복잡적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 그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3가지로 요약.
 - ①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언택트 확산, AI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
 - *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십억불, OMDIA) : ('19)429 ('20)473 ('21*)525
 - ② 또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혜손으로 주요국들이 자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면서 **반도체 GVC가 논의 중심축**으로 부상
 - ③ 미국·EU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애플 등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
- ☞ **반도체 산업은 총수출의 1/5('21.10월 19.4%)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으로 앞으로도 “메모리부문 초격차 유지+비메모리부문 추월선도”라는 “제2의 반도체 도약”이 절실.**
-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획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모멘텀과 대응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소위 **K(벨트)-반도체 전략**을 제시하고 **반도체가 포함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중**
 - 먼저 **내년 예산에 BIG3산업 6조원 이상(6.3조원) 지원 편성**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 세제우대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재정·세제지원** 강력 추진중
 - 민간부문도 이에 보조를 맞춰 향후 **510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
 - **오늘 반도체산업 육성방안만 집중 논의**하는 이 **BIG3 추진회의체**가 정부 정책의지의 방증이며, GVC 등 경제안보, 기술패권 등이 엮어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한 **대외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도 **반도체 GVC 전략적 대응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

- 오늘 회의는 올해 반도체분야,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속한 연세대 공과대학에서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K-반도체전략에서 제시된 향후 10년간(22~31) **3.6만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목표한 바대로 인재양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

<금일 BIG3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 ②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완화
 - ③ 반도체산업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 ④ 시스템 반도체 중소 펌리스 지원방안을 상정·논의
- ①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임
 - R&D 관련, '11년 이후 대규모 국책 R&D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최근 1조원 규모 **차세대지능형반도체 R&D**(1조 96억원, '20~), 4천억 규모 **PIM인공지능 반도체 R&D**(4,027억원, '22~) 등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이 본격 착수
 - 이를 계기로 반도체 R&D 분야 **중장기 투자전략과 인재양성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고 **연구인프라 활용도 제고**에 집중 지원하고자 함
 - ① 즉 향후 10년간 반도체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반도체 R&D 중장기(23~32)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22)
 - ②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22)하고, 특히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한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기반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 ②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완화**」와 「**반도체산업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임
 - 반도체 제조역량 확보/강화를 위해 인허가, 규제문제 등이 최대 현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처리/대응**해 나갈 것
 - **화성 EUV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EUV센터 부지계약 문제는 최근 마무리되었고 **용인 클러스터**의 하천도로 등 기반시설 점용 인허가 협의 등도 연내 완료할 계획. 규제 완화 과제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음
 - 한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누적 생산차질이 10만대를 넘어서는 상황인 바, 그동안 **신속통관**(1.5만건, 4.1억불), **교섭지원**(약 18만대 분량), **대체가능 11개 품목 발굴 및 성능인증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수급대응을 긴급지원해 옴

→ 향후 중기적으로 차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R&D 대폭 확대(20~25, 957억원), 차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 추진(22~24, 250억원), **차반도체 국가로드맵 수립** (~'22.1월) 등을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임

○ **팹리스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 및 R&D 비중 등으로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분야**이지만 초기비용 부담, 파운드리 연계 부족 등으로 **안착기반이 취약**

☞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0%**(20년 1.5%), **팹리스기업 300개**(20년 150개), **유니콘기업 5개**(20년 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진입-생산-판로**” **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모두발언 여기까지임)